

탈북 1인 가구의 남한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 현 아*
(서울사이버대학교)

조 영 아
(상지대학교)

김 요 완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특성이 어떠한 지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고,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중 서울경기의 수도권 4명, 지방 5명 총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에 의하였으며, 면접 조사 및 자료 분석은 교육학 및 심리학 박사 3명에 의한 삼각 검증법으로 진행되었다. 합의도출 결과 5개 범주, 14개 하위영역, 62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탈북 1인 가구는 남한입국 이전의 가족 해체된 경험으로 결혼보다는 남한 사회 정착이 우선이었고 재북 가족과의 미해결과제가 남아있으며, 남한입국 후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또한 1인 가구로서의 심리적 고통, 가족부재로 인한 사회문화 적응의 취약성, 경제적 독립과 주거 안정의 어려움, 혼자 챙기는 건강 문제로 인한 홀로 서기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거나,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적응유연성, 적극적 배움을 통한 삶의 의미추구와 같은 심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화적 유능성의 신장, 경제적 자본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 체험과 적응을 고려하는 안정적인 진로탐색과 같은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추후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주요용어: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탈북 1인 가구의 특성, CQR

본 연구는 2012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KRF-2012-4).

* 교신저자: 김현아, 서울사이버대학교(haha6082@hanmail.net)

■ 투고일: 2014.10.30 ■ 수정일: 2014.12.26 ■ 게재확정일: 2014.12.30

I. 서론

2014년 3월 기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6,483명이다(통일부 홈페이지). 2011년 실태조사 결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남한에 혼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31.4%, 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62%였다. 2차 조사결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남한입국 시 혼자 입국한 탈북자는 64.4%였고, 입국 이전이나 이후에도 다른 가족 없이 혼자인 경우가 51.3%에 달했으며 2000-2002년 입국자는 56.5%, 2003-2006년 입국자는 44.4%, 2007-2010년 입국자는 55.5%였다. 이러한 탈북 1인 가구의 증가추세는 국제정세 및 북한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과 같은 외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즉, 김정은 체제 이후 강화된 감시체제로 인하여 가족동반 입국이나, 남한에 먼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의 가족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는 기획입국의 형태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으로 볼 때,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탈북 1인 가구의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며 이에 탈북 1인 가구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 및 제3국 체류기간 다양한 외상경험으로 인한 우울, 불안, 문화적응스트레스(조영아 외, 2009), 건강상태 저하(윤인진 · 김숙희, 2005), 경제적 어려움(설진배 외, 2014), 남한사회에서의 사회적 배제(김광웅 · 이봉근, 2011)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성공 여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변수이다(윤인진, 2000). 가족이 보유한 자원, 가족형태 및 주변지원체계 등은 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다(박미석 · 이종남, 1999; 한인영 · 이소래, 2002). 반면 가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연구들은(박미석 · 이종남, 1999; 장혜경 · 김영란, 2000) 가족이 함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동시에 지적하기도 한다(진미정 · 이순형, 2007 재인용). 한편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이 크게 관련이 없다는 연구(진미정 · 이순형, 2007)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변인은 새로운 남한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가족의 역할이나 기능은 일관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한 가족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사회 적응속도 차이, 적응기제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가족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남한적응과정에서 북한 이탈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적응의 문제(김영수, 2000; 이순형 외, 2006)를 다루거나 탈북과 정착전후의 가족관계나 역할변화, 가족갈등의 문제들(김영희, 2006; 이민영, 2004; 장혜경·김영란, 2000)을 다루어왔다. 일부 연구에서 여성(조영아, 2012), 청소년(김유정, 2012), 한 부모(조영아 외, 2014)의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의미를 탐색해보는 시도도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단독 탈북자가 가족단위 탈북자에 비해 성인(송지준, 2005; 조영아 외, 2009)과 청소년(조영아 외, 2011) 모두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취약함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 땅에서 중요한 지지원이 될 수 있는 가족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고, 다양한 지지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안정된 정착이 힘들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탈북 1인 가구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남한사회에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사회도 급속도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남북한 관계의 긴장 분위기로 인하여 탈북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탈북 1인 가구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 이들의 가족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탈북 1인 가구의 남한사회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II. 문헌고찰

1. 1인 가구의 개념 및 특성

가. 1인 가구의 개념

1인 가구란(one-person household), 혼자서 다른 가족과 결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사 및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UN 통계국, 2014 홈페이지). 통계청(2005)에 의하면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1인 가구는 형성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 가구와

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되며,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년 1인 가구, 장년 1인 가구, 노년 1인가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비혼 1인가구와 혼인 1인가구로 구분하기도 한다(변미리 외, 2008). 1인 가구는 형성특성과 대상범위를 고려할 때 특정 인구 코호트에 따라서 상호 배제적이라기 보다는 중첩적인 경향이 있다(변미리 외, 2008). 본 연구에서의 탈북 1인 가구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의거 주택배정을 단독가구로 배정된 경우이고 남한입국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별거, 이혼의 증가, 청장년층의 실업률 등으로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다양할 것을 감안하여 독립적인 거주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통계청 노인기준인 65세 이상임을 고려하여 6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노인 1인 가구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나. 탈북 1인 가구의 특성

한국의 1인 가구는 최근 가족 형태 변화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구형태로 1990년에 9.1%에 머물렀으나 2010년 24.2%까지 거의 3배 증가하였으며, 2010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414만 가구에 달한다. 2011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이나 2인 가족보다도 많은 위치에 있다. 이렇듯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1인 가구는 이혼,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또한 청년 실업문제로 인하여 20, 30대의 청년 1인 가구도 노인 1인가구의 비중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김도희, 2012). 이에 한국성인의 대다수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한국 내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탈북 1인 가구라는 특수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1인 가구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외로움과 고독감의 정서적 문제를 동반한다(박정윤·김진희, 2002). 이주자들은 과거 고국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원해 주던 사회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정서적으로 고립될 뿐 아니라 물질적 지원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박형원, 2012 재인용). 난민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가족단위 난민 집단에 비해 주로 주택과 경제적 어려움(RCOA, 2013), 보육 혜택과 같은 정부지원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Statistics Canada, 2007). 단독거주 탈북자는 가족단위 입국자와 비교할 때 정신건강(송지준, 2005; 조영아 외, 2009)이나, 신체적 건강(윤인진·김숙희, 2005)이 더 취약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도 단독 거주하는 무연고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내현화 문제행동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아 외, 2011).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탈북 1인 가구는 정신적 어려움 뿐 아니라 주택 및 경제적 불안을 더 경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탈북 1인 가구의 가족형태를 좀 더 심도 깊게 탐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2.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과 가족관련 변인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생활 중 영양결핍,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보건의료제도 상의 결함으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저하되어 있고, 탈북 이후 중국 및 기타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불안과 강박관념 및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다(윤인진·김숙희, 2005). 또한 남한사회에서 여러 가지 배제경험을 하고 있었다. 김광웅과 이봉근(2011)에 의하면, 탈북자의 소득보장, 건강, 언어이해능력, 조직분위기는 경제적 배제에 주거환경, 교육기회, 건강, 언어이해능력은 공간적 배제에, 언어이해능력은 사회관계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일을 갖는 것은 생활만족도에, 학업은 생활만족도와 자존감,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생계비 수급이 탈북자의 초기 남한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심리적 적응의 장애 요인이었다(설진배 외, 2014).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탈북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적응이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기초 생계비에 의존할 경우 오히려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 및 민간단체들은 탈북자의 안정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공식적 사회지지 체계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한샘, 남석인과 김윤경(2011)의 연구에 의하면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망이 스트레스와 적응을 조절하는 변인이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지지체계 없이 혼자 남한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1인 가구가 적응 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나가는 지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탈북자 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남한입국 후 가족 간의 갈등이나 관계의 변화를 다루었다. 가족변수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구조, 동거가족, 가족기능, 적응영역에 따라 일관되지 않다. 지금까지 북한이탈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의 문제를 다루거나, 북한 이탈가족의 가족 재결합이 증가하면서 가족해체와 재구성에 따르는 가족문제를 다루고 있다(조영아 외, 2014).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형태를 배우자의 국적이거나 이혼, 재혼, 상봉 후 재결합과 같은 혼인 위주로 보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혼인을 하지 않거나 북한이나 제3국에 자녀를 두고 온 탈북 1인 가구가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어보지 못하였다. 반면, 진미정과 이순형(2007)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없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가족적응은 전혀 다른 체제에 대한 적응이 될 수도 있는데, 북한사회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미명 아래 가족의 존재나 활동이 국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한국사회에서는 가족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삶을 개척해나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김영희, 2012). 이러한 가족문화의 차이는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단위 가족문화에 익숙한 탈북 1인 가구가 생소한 가족형태를 취하면서 남한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독특한 형태의 적응기제를 구축해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여 4명, 남 5명, 총 9명이다. 연령별로는 24세에서 61세까지이며, 평균 연령은 34세이었다. 서울경기의 수도권 4명, 지방이 5명이었으며 진학 준비 중이거나 무직이 2명, 직장인 4명, 학생이 3명이었다. 자세한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No	성별	나이	남한정착 기간	학력	직업(전공)	출신지역	거주 지역
1	여	26	4년	대재	대학생(사회학)	평양	서울
2	남	32	6년	고등중졸	카운터 경리	함경북도	경기
3	남	30	3년	대졸	대학생(의학)	평양	대구
4	여	30	2년 7개월	고등중졸	무직(아르바이트)	함경북도	경기
5	여	61	10개월	고등중졸	무직	함경북도	강원
6	남	38	10년	대졸	사회복지사	함경북도	서울
7	남	24	7개월	고등중졸	기계부품 조립	량강도	경북
8	여	35	2년	전문대졸	대학생(간호학)	량강도	전라
9	남	33	1년	기능공졸(전문대졸)	목공일	평양	강원

2.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소수의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을 연구하는데 주로 사용된 합의적 질적 분석(CQR: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사용하였다(Hill 등, 1997). 이 분석 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과 Elliot(1989)의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구성할 때 연구자들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방법의 객관성 결여와 결과의 반복성, 엄격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또한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은 분석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근거이론의 장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거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독특한 경험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으로, 이전에 연구된 바가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집단에 대한 행동과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에 유용한 방법이다(Stem, 1980). 이전에 탈북 1인 가구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장점을 포함하고 있는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탈북 1인 가구의 독특한 경험을 발생배경, 적응상의 어려움과 대처과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9명이었는데 Hill 등(1997)에 의하면 CQR의 연구대상은 10-15 사례가 적당하다고 보며, 국내 연구(손강숙, 2014)에서도 8-15명이 적당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CQR을 수행하기 위해 3인의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연구팀 구성원들은 모두 상담심리학 전문가로, 과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와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질적 연구방법 중에 CQR과 근거이론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이다. 연구자들은 전국을 서울/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리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구역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등)에 참여자 추천을 요청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소개로 추가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면접은 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귀하에게 가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혼자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 남한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나가나요?” 등이었고, 본격적인 심층면접을 하기 전에 2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분석 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질문할 내용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 후 심층면접하면서 녹음과 연구에의 활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또한 모든 녹음 내용을 글자로 기록하는 텍스트 화를 진행하여 문장의 단락들을 쪼개어 분석하는 단락분석으로 개념을 명명화 하되, CQR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3인이 각 단락을 읽어가며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개념, 하위 영역명, 범주 명을 명명하였다. 또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연구과정과 명명화한 결과 등을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3년 이상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자 6인에게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교차분석 결과는 논의와 합의절차를 거쳐 총 5개 범주, 14개 하위 영역, 62개 개념이 도출 되었다. 주요 범주는 탈북 1인 가구의 가족관계 변화, 남한생활 홀로서기의 어려움, 전략적 대인관계, 심리적 자원,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이었다. 교차분석 결과는 Hill 등(1997, 2005)의 기준에 따라 전체 9사례 모두인 경우 일반적(*general*)”, 5사례 이상 “전형적(*typical*)”, 5사례 이하를 “드문(*rare*)”으로 표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탈북 1인 가구의 가족관계변화와 남한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개념	응답빈도	하위영역	범주
북한체제에 대한 문제인식 생활고 탈피를 위한 탈북 북한에서 가족이 사망함 북한 및 제3국에서의 가족해체 결혼보다는 남한사회 정착에 집중 마땅한 이성을 못 만남 독신의 자유로움을 자발적 선택	전형적(5/9) 드문(3/9) 전형적(5/9) 드문(2/9) 드문(2/9) 드문(2/9)	탈북 1인 가구의 형성과정	탈북 1인 가 구 의 가족관계 변화
북한가족의 남한입국 추진 희망 입국비용 부담으로 북한가족과 재결합을 미룸 경제적 지원 가능할 때까지 연락을 미룸 감시체제 강화로 인한 재북 가족과의 연락두절 재북 가족과의 연락을 꺼림	드문(3/9) 드문(2/9) 드문(1/9) 드문(3/9) 드문(4/9)	재북 가족과의 미해결 과제	
북한에서는 생존 우선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미 인식 북한에서는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중요 남한입국 후 가족의 소중함 재인식 남한입국 후 북한에서의 집단주의 가족개념이 무너짐	드문(1/9) 드문(4/9) 전형적(5/9) 드문(3/9)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부재로 인한 외로움 가족부재로 인한 삶의 의미상실 혼자 견뎌야 하는 만성스트레스와 우울 아프고 힘들 때 가족생각으로 서러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의지대상 상실 후 자살사고	전형적(6/9) 드문(2/9) 드문(4/9) 드문(3/9) 전형적(5/9) 드문(2/9)	1인가구로서의 심리적 고통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 말투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가족 부재로 인한 탈남 현상의 용이성	드문(4/9) 전형적(5/9) 드문(1/9)	가족부재로 인한 사회문화적응의 취약성	
브로커 비용 및 가족송금 부담 미취업 상태에서의 생활비 걱정 초기 적응 과정에서의 경제관념 부재 거주지 불안정 초기적응 시 주거환경의 열악함	드문(3/9) 드문(4/9) 드문(1/9) 전형적(5/9) 드문(4/9)	경제적 독립과 주 거 안정의 어려움	
식사소홀로 인한 건강문제 병명이 명확하지 않는 만성통증 호소 고된 노동과 무리한 학습으로 인한 건강악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큼 병고(病苦) 시 도움 받기 어려움	드문(3/9) 드문(2/9) 드문(3/9) 드문(1/9) 전형적(5/9)	혼자 챙기는 건강문제	

1. 탈북 1인가구의 가족관계 변화

가. 탈북 1인 가구의 형성과정

탈북 1인 가구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이들의 탈북 동기는 북한체제에 대한 문제인식, 생활고 탈피 및 자녀나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목적이었다. 참여자 6에 의하면, 생활고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가족이 사망하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북한사회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자기 이웃들이나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이..막 이렇게 막 굶어죽고.. 굶어갓고 죽었다는 등. 부모님들이.. 친구 부모님들이 누가 돌아가셨다. 뭐 어떤 집안은..몽땅 탈북 했다는 등.. 어쨌든 그런 말들을 듣다보니까, 그 때부터 심적으로 막 그때부터 조금 이성을 잃기 시작했죠. 야...내가 진짜 똥 때문에 젊은 나이에 군대와가지고 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려고 있는지.. 뭐..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이 혼란이 왔고. 과연. 진정한 백성을 위한 ..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굶어죽을 정도로 회의도 많이 들었었고...”(참여자 6)

남한사회에서 1인 가구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 결혼을 통해 가정의 안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남한사회 정착이라고 보았다.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지만 남한사회 정착이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지방의 남성 1인 가구는 지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대부분 영세업체에 근무함으로써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아 마땅한 이성을 만날 기회 자체가 부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북한 및 제3국에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이 북한에서 이미 사망을 하였거나 배우자와 이혼 한 후 탈북을 한 경우가 많았으며 제3국에서의 남한입국 시도 과정에서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혼자 생활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스스로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1과 같이 북한이나 제3국에서처럼 여럿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식 생활의 편리로 인해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삶은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기도 한다.

“아니 그 저희 부모님만 봐도 어머니만 봐도 쉬고 싶어도 가족이 있으니까 밥은 해야 되고 대충 그냥 뭘 비벼서 드시고 대충 이려고 누워 자고 싶어도 가족 때문에 반찬하고 찌개 끓여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혼자 살면 너무 편하잖아요. 대충 나가 사먹어도 되고 뭐 밤새 글 쓰고 공부해도 되고. 근데 가족이 있으면 잠자는 시간이 정해지고 (그렇지)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뭔가 이렇게 공동체. 그게 되게 혼자면 또 자유롭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제 주변 애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굳이 결혼해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북에서 온 친구들인데도.”(참여자 1)

나. 재북 가족과의 미해결 과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북한에 두고 온 형제나 자식 등의 가족도 남한에 입국하기를 희망하였다. 언젠가 남한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그 날을 꿈꾸며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빠른 남한사회 정착의 동기가 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입국비용 부담으로 북한가족과의 재결합을 미루고 있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연락을 한다는 것은 곧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선행요건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들도 혼자 남한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든 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탈북 1인 가구의 북한 가족과의 재결합은 가족의 입국 추진에 대한 결심과 경제적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남한입국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재북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기도 하고 생사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못하고 있었다.

다.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에서는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시급하다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남한입국 후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가족의 의미란, 집성촌을 이루어 함께 생활함으로써 인해 가난하지만 큰 힘이 되는 존재로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힘들 때 이해해주고 서로 도우며 정서적인 안정과 위안을 주는 존재로서 편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참여자 4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힘들었다고 지지해주는 말 한마디에도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나눌 수 있는 이해의 정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래도 내가 힘들 때 말이라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다면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친구는 솔직히 그래요.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거를 그 만한 상황에 아직 이르지 못하니깐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친구니까 아 너는 아직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면은 그냥 그까지만 해요. 근데 가족은 다 니가 진짜 힘들었구나 하면은 뭐 정신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그래 밥 한 그릇 해 놓고 먹고 밥 먹어 스트레스 받아도 밥은 먹어야지 이렇게 가족이라는 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가끔씩 생각이 나요. 혼자 있으니까요.”(참여자 4)

가족은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주는 존재일 뿐 아니라, 참여자 1은 가족의 의미를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모두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이라고 표현한다.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주며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탈북 1인 가구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북한에서는 가족이 함께 있고 생존이 우선이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탈북 후 제3국 체류기간 까지도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되었지만 남한입국 후 혼자 살면서 겪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한입국 후 북한에서의 집단주의적 확대가족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집단이 함께 뭉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사항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2. 남한생활 홀로서기의 어려움

가. 1인 가구로서의 심리적 고통

탈북 1인 가구는 가족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음으로

인해 삶의 목표나 의미가 사라질 때도 있다고 말한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의 상실이 외로움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및 제3국 체류과정의 누적된 긴장감에서 오는 만성 스트레스는 위염, 만성통증과 같은 스트레스성 신체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남한사회에 도착과 동시에 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혼자 이러한 만성화된 스트레스와 우울을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프고 힘들 때 자신을 보호해줄 가족이 없으므로 인해 가족생각이 많이 나고 서럽다고 말한다.

“제가 솔직히 어제 그저께 감기몸살로 제가 일을 못 나갔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 아프다는 말을 안했어요. 약을 먹는 데 진짜 혼자 서럽더라고요. 누워 있으면은 진짜,,누나라도 있으면은 진짜 수건을 찬물 적셔서 얹어줄텐데 그런 걸 얹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뻐 좀 서럽더라고요.”(참여자 2)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1인 가구 연구 참여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북한의 가족이 늘 그립고 보고 싶은 존재이지만 앞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가족을 두고 혼자 남한에 입국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발한다고 말한다. 삶이 지치고 의지할 대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는 자살사고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참여자 2의 경우를 보면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던 부모님을 잃게 되었을 때 “의지할 때가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하는 극단적 생각이 든다고도 한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가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릴 때 아버지란 장벽이 무너지면서도 거기서 어깨가 조금 처졌는데 이번에는 엄마라는 존재마저 사라지니까 양쪽 어깨가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나는 의지할 때가 없구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솔직히 제가 그래가지고 자살시도도 제가 하기도 했었어요.”(참여자 2)

나. 가족부재로 인한 사회문화적응의 취약성

참여자 5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람들에게 “변절자”로 비취지는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북한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연구 참여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남한주민과 동등하게 봐주지 않고 늘 가르치고 관리, 통제해야 되는 대상, 도움을 주어야 하는 수혜자로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이 불편하다고도 말하며, 참여자 4는 남한사회가 진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지 않고 임금에서 차별을 두거나 감정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대화 도중에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나이가 어린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성별, 단독 세대라는 중첩적인 사회적 약자로 인해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경험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보고 한다.

“아 일단은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차별이 저는 막 싫어요. 왜냐면 내가 국가 돈을 공짜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벌어서 내가 사는데 월급을 안 준다던지, 미룬다던지, 아니면 대화중에 사람을 살짝 깔본다는 그게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걸 저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진짜 싫어요 저희는. 왜냐면 일단은 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 요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받아주는구나 마음에 이게 있으니까 왔는데 아우 저렇게 사람을 차별할까 그런 게 또 막 싫더라고요.”(참여자 4)

특히 참여자 1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을 “북한에서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왔기 때문에 겪어야 할 관문이면서도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인 듯하다. 탈북 1인 가구에 게 사회적 편견은 사회문화적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민감하게 지각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말투차이로 인한 언어소통의 어려움도 혼자 남한생활을 하면서 겪는 사회적응의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북한 사투리가 어조도 다르고 어색하여 남한주민과의 교류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 대화로 소통이 되지 않아 남한 언어를 이해하기가 더 힘들었다고 말한다. 북한 언어사용에 대한 불편감이 대인관계 위축을 가져오게 하고, 이러한 관계패턴이 남한사회에서 언어적 소통과 문화적 이해를 힘들게 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듯하다. 참여자 4는 혼자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 1인 가구와 탈남 현상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이 없으므로 인해 한국을 떠나 또 다른 제3국행 선택에 대한 변수도 적고,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하였던 것처럼 이주를 통한 생존방식이 더욱 강화되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듯하다.

“당연하죠. 미련 없이 가버리죠. 뭐 가족 없고 부모 없고 하면 내가 가면 되는데 일단 거기 가보자. 어차피 여기 왔는데. 뭐 북한에서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여기도 오고 이까지 왔는데 뭐 캐나다라도 못가겠냐 홀러딩 가버리고. 갔다가 또 다른데 가고.”(참여자 4)

다. 경제적 독립과 주거 안정의 어려움

초기 적응 과정에서는 경제관념 자체가 없어서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탈북 1인 가구들은 대부분 브로커 비용 및 가족송금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초기 적응 과정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탈북 1인 가구는 브로커 비용 지불 후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져 있었다.

또한 탈북 1인 가구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는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참여자 1과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임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밥 먹을 돈이 없는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 생활비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쵸. 제가 임대아파트를 받았었는데요. 임대아파트 사는데 임대아파트 보통 방 두 칸이잖아요. 근데 혼자 학교 다니면서 이제 40만원 가지고 그때는 후원자들도 없었어요. 처음에 금방 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살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밥 먹을 돈이 일단 없는데 방은 두 칸이고”(참여자 1)

탈북 1인 가구는 거주지가 불안정한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었다.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거주지를 여기 저기 옮겨 다니기도 하고, 거주지 배정에 있어서 가족단위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1인 가구는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배정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거주지 불안정의 문제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도 하고, 주거 관련 추가 생활비 발생 등의 이중고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초기적응 과정 가재도구 미흡을 강조한다. 특히 남한입국 초기 과정 1인 가구 가족유형은 브로커 비용이나 가족 송금 부담으로 인해 생필품 도구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주거환경이 안정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남성 1인가구의 경우 혼자서 가정살림에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마련하려 가기도 불편하다고 말한다.

라. 혼자 챙기는 건강문제

연구 참여자들은 혼자 생활에 따른 식사소홀과 그로 인한 건강문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병명이 명확하지 않는 만성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고된 노동과 무리한 학습으로 인한 건강악화가 우려되었다. 밤낮 없이 닦치는 대로 일을 하려고 시간을 쪼개 가면서 무리하게 노동을 하거나, 배움을 통한 성취를 위해 무리하게 학습을 하면서 건강에 무리가 오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러한 무리한 노동이나 학습으로 인한 건강악화 이외에도 혼자 생활로 인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질병은 곧 자신의 존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매우 취약하였다. 특히, 아프고 힘들 때 지속적으로 돌봐 줄 사람이 없다고 지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픈 모습을 남한주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남한사회에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 마음 편하게 남한 언어로 소통할 자신이 없어진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인에게 털어놓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남에게 털어놓기 힘든 주제라고 말한다.

표 3. 탈북 1인 가구의 남한생활 어려움에 대한 대처기제 교차분석 결과

개념	응답빈도	하위영역	범주
제한적인 남한 주민과의 교류	드문(3/9)	적응을 위해 소수의 남한주민과 교류함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인 관계
적응 수단으로서의 남한 주민과의 교제	드문(4/9)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드문(2/9)	심리적 의지를 위해 탈북동료와 교류함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기피 행동	드문(3/9)		
동반 탈북 동료에게 힘든 상황 의논	드문(2/9)		
삶의 고통에 대한 관망과 수용	드문(3/9)	긍정적 자원으로로서의 적응유연성	심리적 자원
강하게 어려움을 버팁	드문(2/9)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드문(4/9)		
독립심	전형적(6/9)		
일상적인 현실에 만족하는 삶	드문(3/9)		
자기발전을 위한 뚜렷한 목표의식	드문(2/9)		
배움을 통한 삶의 목표와 기대 형성	드문(3/9)	적극적 배움을 통한 삶의 의미 추구	
미래를 위한 교육적 투자로서 학업매진	드문(3/9)		
적극적인 학교모임 참여와 동료교류	드문(3/9)		
성실한 생활로 편견을 극복하고자 함	드문(3/9)	문화적 유능성의 신장	
외국 경험을 통한 문화 차이 수용	드문(2/9)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봉사	드문(2/9)		
근검절약 및 계획적인 소비생활	드문(3/9)	경제적 자본 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
자본주의 경제관념 습득	드문(3/9)		
시간제 아르바이트 종사	드문(2/9)		
다양한 직업경험	드문(2/9)	체험과 적응을 고려하는 안정적인 진로탐색	
조기 진로결정	드문(4/9)		
남한사회에 적합한 현실적인 진로조정	드문(4/9)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남한사회를 배움	드문(4/9)		
자신의 성향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선택	드문(2/9)		
북한에서 미성취한 꿈을 위한 전공 선택	드문(2/9)		
직업훈련 수당보다 직접적 직장체험이 중요	드문(1/9)		

3.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인관계

가. 적응을 위해 소수의 남한주민과 교류함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 및 학교 내 또래가 없게 되면 남한주민과 교류자체를 기피하거나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한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남한주민과 대인관계를 맺거나 소수의 제한적 대인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참여자 4의 경우, 남한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적어도 한국말이라고 배울 수 있고 뭐 하나라도 남한사회에 필요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로운 대상인지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인지를 늘 탐색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앉아서 얘기하는 게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하면 될 뿐이고. 저는 그리고 한국분하고 마주 앉아 들으면 그 한국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못 알아들어도 한국말이라도 배우지 않을까 억양이라도. 제가 지금 하는 게 한국말이라도 틀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들리는 거 하나를 지금 뭐 같이 얘기하시는 분이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거를 하나라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새로운 정보는 몰라도 억양이라도 더 하나 배우지 않을까. 오히려 저도 그게 기뻐요.-중략-전 대화를 해보고 아 난 저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뭐 조금 신세 같은 거 저도 되겠다,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친 하려고 하는데요. 딱 보고 사람이 사나워 보이고 처음 만났는데 막 안 좋은 말하고 이러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고. 근데 어려워요”(참여자 4)

나. 심리적 의지를 위해 탈북동료와 교류함

연구 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북한이탈주민끼리의 교류는 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를 기피하고 있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만나서 술마시고 싸움을 하거나, 서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 더욱 더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거주지 배정도 일부러 지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동반 탈북 한 동료에게 의논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여자 2를 보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급한 금전적 문제가 있을 때 허물없이 만나고 서로 의지하는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동료임을 알 수 있다.

“저도 **이한테 신세 많이 졌고 제가 여기 와서 중국에서 알던 친구들 다 만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연락을 안 해요. **하고 저하고만 연락을 하고..**도 돈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거든요. 담배 사주라. 그러면 와,,그러면 이 새끼 남자 대 남자로 언제 우리 서로 내 돈 니돈 그랬냐? 돈 없으면 이야기해..장난삼아,,에라이 거지같은 새끼야..주머니에 돈도 없어가지고 장난삼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나마 **가 제가 의지되고 저두 의지되고,,”(참여자 2)

4. 심리적 자원

가.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적응유연성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좋은 삶을 향한 길이라 생각하고 강하게 어려움을 버틴다거나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참여자 6을 보면, 불가능 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사고를 전환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성향은 참여자 7과 같이 삶의 고통에 대한 관망과 수용이라는 인격적 성숙을 가져오게 한다.

“네, 그냥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내가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할 때 쯤 이런 것을 추억하면서 살아온 그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요. 그냥 이런 상처나 괴로움이 없다고 하면 허무해질 것 같아요.그렇게 생각한다면니까요. 그건 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런 살면서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 나도 그렇게 있었구나 그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진짜 그렇게 잊지 못할 일이 생겼고 그게 좋은 거죠.(참여자 7)

탈북 1인 가구의 전형적인 심리적 속성은 독립적 성향이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독립적인 심리특성은 가족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모든 타인의 도움으로부터 의지 하지 않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주변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탈북 1인 가구는 한국에 온 것 자체가 꿈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발전이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진하면서 일상적인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기회가 주어지는 남한사회가 주는 만족감이 더 큰 듯하다.

나. 적극적 배움을 통한 삶의 의미 추구

탈북 1인 가구는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에게 배움은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식이기도 하면서 삶의 목표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움이 곧 삶의 목표와 기대라는 의미부여와 더불어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배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기도 하고, 적극적인 학교모임 참여를 통해 동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교육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나와서 여기 가서 알바하고 저기 가서 알바해보니까. 힘들어도 배우는 게 어차피 뭐 알바해도 힘들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배우는 게 앞으로 전망은 있겠다. 확고하게 지금 그냥 확고한 거 하나만은 배워야 된다 그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일생동안 적응이 안 될 거 같아요.”(참여자 4)

5.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

가. 문화적 유능성의 신장

사회적 편견에 대한 탈북 1인 가구의 대처방식은 적극적이고 유연하였다. 참여자 1과 같이 노력과 성실한 생활로 편견을 극복하고자 한다거나, 중국이나 태국, 미국과 같은

외국경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편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그냥 뭐 편견에 그것 때때 속상해하고 그럴 시간이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적어도 제 주위에 주변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들 저렇게 열심히 사는 애들도 있구나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샌.”(참여자 1)

그밖에도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봉사과 같은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경제적 자본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로서 경제적 자본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수입의 얼마를 정기적인 보험, 저축, 적금에 들어놓고 있는 등의 경제적 자립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절박한 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1인 가구에게 스스로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곧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인 듯하다. 참여자 2를 통해 미혼 남성 1인 가구이지만 결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수입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이 별지는 않았지만 조금..제가 북한에서 오면서 결심한 게 만일 제가 혹시 여기서 결혼을 하더라도 내 자식만은 나처럼 살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이름으로 적금을 이 십년짜리를 들어 놓은 게 있어요.”(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적응을 위해 자본주의 경제관념 습득한다거나 1인 가구 학생의 경우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특히, 수입이 없는 1인 가구 학생으로서 주어진 수입 내에서 아껴 쓰고 절약하는 근검절약 및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 하고 있었다.

다. 체험과 적성을 고려하는 안정적인 진로탐색

탈북 1인 가구는 다양한 직업경험이 현재 직업적응의 발판이 되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정착 초기에 하나원을 나가자마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고 적극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조기 진로결정의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남한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음으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구조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참여자 9는 자신이 북한에서 했던 직업과 관련이 되면서도 남한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고 직업적으로도 전망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여 남한사회에 적합한 현실적인 진로조정을 해나가고 있었다.

“여기는 원래 나무 제지소가 대한민국사람들이 원래 젊은 사람치고 통나무제지를 안하잖아요. 나무일에는 취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기 우리 노인네들이 일하거든요. 육십... 예순 다섯 먹은 노인네들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되서 나와 주면 거기 이제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 그 일 시켜먹을 사람이, 외국인들 데려다가 시키거든요. 지금. 근데 외국인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비자를 받아갖고 와서 일하고 그 땀 가져드요. 그러기 때문에 기술 안 배워주거든요. 한국 사람으로서, 사업자로서 외국인들한테 기술 안 배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서는 그럼 너희 네들한테 같이 붙어서 기술 배우면, 나도 헐하고 그, 그이는 앞으로 이 나라가 살아있는 한 나무일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배워서 앞으로도 헐하지(: 쉽지) 않으니까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배워야 앞으로도 정말 뭐.. 돈을 벌어먹기도 헐 하고(: 쉽고), 익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그 방법을 택한 거지.”
(참여자 9)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도 남한사회를 배우고자 하였는데, 인사법이나 예절과 같은 기본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에티켓을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있고 이처럼 아르바이트가 되었던 직장체험이 되었던 직접 체험방식이 직업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밖에도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하지 못하는 북한사회 분위기로 인해 북한에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한다거나, 자신의

성향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선택이 직업적응의 촉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 훈련 수당 목적보다는 직접적인 직장체험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V. 논의

본 연구는 탈북 1인 가구의 남한생활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전국의 탈북 1인 가구 9명을 대상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를 통해 탈북 1인 가구의 특성과 남한 정착과정을 탐색한 결과 탈북 1인 가구의 가족관계 변화, 남한생활 홀로서기의 어려움,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인관계, 심리적 자원,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의 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1인 가구의 가족관계 변화라는 범주는 탈북 1인 가구의 형성 과정, 재북 가족과의 미해결 과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의 영역으로 나누어졌다. 본 연구결과로 인해 탈북 1인 가구는 북한 외 정치적 요인의 내생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탈북자 집단(이가연, 2013), 북한 내에서는 미래형과 경제형(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탈북 동기를 지닌 집단이며 동시에 북한을 떠난 제3국에서는 정치형의 탈북 동기를 지닌 집단(정정애 외, 2013)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2000년대 이후 브로커의 등장, 가족초청 연쇄이동에 따라 탈북 현상이 증가된 것(이가연, 2013)을 감안할 때 적극적 형태의 탈북을 결심한 집단임을 입증해준다. 남한에서 1인 가구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에서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하는 등 북한이나 제3국에서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았다. 결혼보다는 남한사회 정착이 우선이라고 보는 시각, 마땅한 이성을 못 만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한입국 이전의 가족해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남한입국 후 새로운 가족 형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성을 접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경진(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밖에도 혼자 생활에서 오는 자유로움이나 생활에서의 편리함으로 인해 자신의 꿈에 매진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한의 사회구조적 특성인 비혼·만혼의 증가, 청년실업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으며 한국사회에서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직업 획득과 결혼이 이후의 연령대로 연기되면서 자립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정민우 · 이나영, 2011) 한국사회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다.

탈북 1인 가구는 재북 가족과의 미해결과제로서 경제적 준비 후 점진적 재결합 추진과 가족과의 연락두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탈북 1인 가구의 수입이 월 100만원 이하 50.3%(북한인권정보센터, 2013)이며, 현재 생활조건이 열악한 고 위험군이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55.5%(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임을 감안해볼 때, 탈북 1인 가구의 경제적 문제가 취약하며, 그에 따른 가족상봉의 시기는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탈북 1인 가구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단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탈북자의 상실감 및 가족 재결합의 부담을 지니고 있고(조영아, 2012), 1인 가구가 원 가족과의 친족행동이 더 두드러지는 특성(김순옥, 2002)으로 볼 때, 재북 가족과의 단절 경험이 탈북 1인 가구에게는 더 큰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나 향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탈북 1인 가구는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즉, 북한에서는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중요하였으나, 생존의 문제가 우선이다 보니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남한입국 이후 북한에서의 집단주의적 가족 개념이 무너지고, 남한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가족해체로 인해 발생한 탈북 1인 가구는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신근화, 2012).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체계가 스트레스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한샘 외, 2011)에 비추어볼 때 탈북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쉽게 고립될 수 있는 집단으로 이는 스트레스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 1인 가구에게 적합한 지원방안으로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남한주민과의 사회적 교류 뿐 아니라 가족부재의 상태가 더 부각되는 명절이나 기념일 등을 주기적으로 챙겨주는 프로그램 등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탈북 1인 가구의 남한생활에서 홀로서기의 어려움은 1인 가구로서의 심리적 고통, 사회문화적응의 취약성, 경제적 독립과 주거 안정의 어려움, 혼자 챙기는 건강 문제로 나타났다. 탈북으로 인해 북한에 가족들이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죄책감과 북한에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장혜경 · 김영란, 2000), 병이 났을 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박미석 · 이종남, 1999)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탈북 후 친밀한 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이를 대신할 유대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지 못한 고립감과 소외감이 깊어지며(이순형 외, 2006), 탈북 1인 가구가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주변화(전체 평균 4.3% 대비 6.55%), 고립형(전체 평균 1.6% 대비 2.6%)의 정체성 변화를 겪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2)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탈북 1인 가구가 남한생활이 힘들거나 몸이 아플 때 의지할 가족이 없음으로 인해 외로움과 삶의 의미상실이 동반되면서 자살사고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경제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정순돌·박지혜, 2014)처럼, 탈북 1인 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건강인식 예방 교육이나 위기상황 긴급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즉, 개인의 건강 체크, 위기 상황에서 지원 등을 개인의 역량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탈북 1인 가구의 경우 여러 가구를 묶어 서로 돌보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부 또는 민간 조직의 설치를 통해 이들을 돌보고 확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탈북 1인 가구의 외로움은 의지할 대상이 없음으로 인해 삶의 의미 상실이나 정체성 불안과 같은 실존적 고독감을 겪기 쉬운 집단이라 하겠다. 사회문화적응의 취약성에 있어서 말투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은 일반 탈북자와 동일하나, 혼자 견디기 힘든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가족부재로 인한 탈남 현상의 용이성은 본 연구결과에서 새롭게 발견된 개념이다. 함께 가족과 살고 있는 가족변수가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사회적 소외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이순형 외(2006)의 연구와 상반되며, 남한사회의 편견은 함께 나눌 가족적 지지가 없는 탈북 1인 가구에게는 더욱 견뎌내기 힘든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탈남 현상은 탈북자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지배적 힘들이 경합한 결과이며, 탈북 청소년의 이산민적 삶의 경험과도 관련이 깊다는 선행연구(오원환, 2011)로 볼 때, 탈북 1인 가구 또한 이산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탈북 1인 가구는 배움을 통해 초기에 적응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직업경험을 하고 학업을 선택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 경제자립 태도에도 불구하고 초기 적응 과정에서는 브로커 비용 지불 및 가족송금으로 인해 미취업 상태에서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며 적응 초기 경제관념이 없을 때 더 큰 경제적 독립의 고충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진배 외(2014)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경제적 고충이 심해질 경우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또한 초기 적응과

정에서 가정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혼자 마련하기도 힘들어 안정적인 가정환경 구축이 지연되며, 일과 배움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하는 거주지 불안정의 특성을 보였다. 1인 가구가 특히 경제 및 주거문제가 취약(RCOA, 2013)하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주었다. 또한 혼자 챙기는 건강문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아플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식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건강관리도 부족하고 병명이 명확하지 않는 통증, 고된 노동과 무리한 학습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이 탈북 1인 가구의 건강문제를 더 위협하고 있었다. 정착 초기 단독 탈북 여성 집단의 정신건강이 더 취약하고 단독 탈북 남성 집단의 음주 및 흡연율이 더 높았다는 선행연구결과(한인영·이소래, 2002)를 지지해준다. 이를 통해 탈북 1인 가구를 위한 몇 가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형 탈북 1인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본 연구를 통해 탈북 1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비나 다양한 지원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남한생활을 해나가는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학지원 혜택이나, 다양한 아르바이트의 알선 등이 필요하겠 다. 둘째, 정착초기 주거안정을 위한 정착도우미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이다. 셋째, 탈북 1인 가구의 의료보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예방 교육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탈북 1인 가구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인관계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탈북자들이 남한주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탈북자 스스로에 대해서는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와 관련이 있겠다. 즉, 가족적지지 기반이 약한 탈북 1인 가구들은 사회적 지지체계 확보를 위해 남한사람과의 교류를 희망하나, 남한주민의 편견과 이질감으로 인해 정서적 친밀감은 탈북 동료에서 얻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일은 탈북 동료 상담자와 상담하길 원하고,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남한 전문상담자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김영경·김현아, 2009)와 유사하다. 목적에 따라 제한을 둔 대인관계 패턴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상호신뢰를 얻기가 힘들다. 본 연구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친밀감 형성 패턴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탈북 1인 가구는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적응유연성, 적극적 배움을 통한 삶의 의미 추구하고 같은 심리적 자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적응유연성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환경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이 모두 유의하게 높다(정정에 외, 2013)는 선행 연구결과에 비추어보았을 때, 탈북 1인 가구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조절을 긍정적으로 해나가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의 꿈과 목표의식이 자기발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1인 가구의 심리적 특성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박충선, 2002 장현숙, 2002)를 지지해주는 결과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새롭게 도출된 긍정적 자원은 독립심, 일상적인 현실에 만족하는 삶이라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독신들이 부모 의존적 성향(이영분 외, 2011)이 있는 것과 상반된다. '자기 자신되기'가 성인기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Levinson(1986)의 성인기 발달이론에 입각해보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혼자 생활하면서도 제2의 정체감 혼미보다는 자기발전을 위한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독립적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삶을 살면서 현실에 만족하려는 긍정적 자원을 통해 발달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양식을 확립하고 뿌리를 내리려고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된 탈북자 정체성과 조율하고 갈등하면서 정체성 혼란과 위기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오원환, 2011)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적응유연성이나 배움을 통한 삶의 의미 추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학업이 생활만족도와 자존감,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설진배 외, 2014)를 지지해준다.

다섯째, 탈북 1인 가구는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남한입국 이후 문화적 유능성이 신장되고, 경제적 자원을 습득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체험과 적응을 고려하는 안정적인 진로탐색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부재가 곧 사회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박미석·이종남, 1999; Williams, 1987)는 입장과는 상반된다.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자원이 생계비를 받으며 시간제 일에 종사하거나 경제적 수입 목적의 연구조사 설문에 참여, 친척 및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의 의존적 경제활동인 것(조영아 외, 2014)과 비교할 때, 탈북 1인 가구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족유형임을 입증해준다. 이는 탈북 1인 가구의 심리적 속성이 독립적이라는 것과도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노력과 성실한 생활로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며, 외국 경험을 통한 문화 차이를 수용,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봉사과 같은 문화적 유능성의 신장은 다른 탈북 가족유형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매우 긍정적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타 인종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타 문화 수용, 민족

정체성 강화, 다문화적 역량 강화 등을 갖추게 되었다는 김현경(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탈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편견대처 방안으로 다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아직 연구가 미진한 탈북 1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탈북 1인 가구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나 남한생활에서 홀로서기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이들이 대처하고 있는 대인관계 특성이나 심리적 자원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탈북자 집단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숫자보다는 가족 기능의 건강성이 더 중요함을 시사해주었다. 또한 탈북 1인 가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나 탈북 1인 가구에 대한 의료보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서울경기에 편중되지 않고 지방 거주 탈북 1인 가구도 다양하게 포함 시킴으로써 서울-지방 간 격차로 인한 탈북 1인 가구의 특성을 포괄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인생발달주기나 연령 성별, 결혼과 같이 탈북 1인 가구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표집 시 연령, 정착기간 등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연령별, 정착기간별 세밀한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령, 성별, 학력, 지역, 소득에 제한 없이 연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탈북 1인 가구로서의 다양한 삶을 하나의 객체로 인정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둘째, 9명의 탈북 1인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탈북 1인 가구의 모집단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탈북 1인 가구의 특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셋째, 탈북 1인 가구의 정착기간 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의 방향은 탈북 1인 가구 증가 요인에 따른 생활실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CQR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점을 도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중에서 사례연구나 현상학적 연구 등을 활용하여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를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광웅, 이봉근(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5(1), pp.1-38
- 김도희(2012). 청년 1인 가구 증가 요인에 따른 생활실태분석과 정부의 정책과제. 2012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순옥(2002). 독신의 원 가족과의 친족행동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pp.173-184.
- 김영수(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9, pp.102-117.
- 김영희(2006). 북한이탈주민 가족유형과 가족적응의 어려움. 석사학위논문, 통일교육 전공,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경남.
- 김영희(2012). 건강한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적응. 2012년도 북한이탈주민학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동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북한이탈주민학회.
- 김유정(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이산경험.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 김현경(2012). 유학생들의 타 인종 접촉과 다문화적 태도에 관한 사례연구. 시민교육연구, 44(4), pp.21-53.
- 박미석, 이종남(1999). 탈북자가족의 남한사회 적응 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1, pp.3-74.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박정윤, 김진희(2002). 독신가족의 가족복지 욕구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pp.17-31.
- 박형원(2012). 해외이주 한인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2(4), pp.304-331.
-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박민진(2008). 서울의 1인 가구 현황과 도시 정책 수요연구. 정책연구보고(2008-49). 서울: 서울연구원.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1).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2). 2012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패널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인권정보센터(2013). 201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경향 - 취업 · 실업 · 소득.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2012, 제7호.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설진배, 송은희, 이은미(201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경제적 적응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북아논총, 70, pp.157-714.
- 손강숙(2014). 학교폭력의 방어자 역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교육학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 송지준(2005). 남한 거주 탈북자들의 관광만족, 여가만족, 사회적 지지가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19(3), pp.209-227.
- 신근화(2012). 독거노인의 가족해체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9(4), pp.79-104.
- 오원환(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 탈북에서 탈남까지. 박사학위논문, 언론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 윤인진(2000).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통일논총, 1, 3-32.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윤인진, 김숙희(2005). 국내 탈북자의 건강 및 의료. 보건과 사회과학, 17, pp.149-182.
- 이가연(2013). 탈북자 발생요인과 국제협력방안 : 북한 내외 정치 ·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북한개발협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경진(2007). 기독교인과 비 기독교인이 미혼 독신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회상담 전공, 장신대학교 목회상담대학원, 서울.
- 이민영(2004).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2006).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영분, 이용우, 최희정, 이화영(2011). 한국사회의 부모의존 독신성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3), pp.5-30.
- 장현숙(2002). 독신의 심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pp.185-195.
- 장혜경, 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김혜영, 진미정(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 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민우, 이나영(2011).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45(2), pp.130-175.
- 정순돌, 박지혜(2014).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보건사회연구*, 34(1), pp.105-132.
-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2(2), pp.215-248.
- 조영아(2012).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4(1), pp.197-222.
- 조영아, 김연희, 김현아(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18(7), pp.33-57.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pp.329-348.
- 조영아, 김현아, 김요완(2014).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적응 어려움과 대처 방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pp.155-179.
- 진미정, 이순형(2007). 가족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5(5), pp.63-74.
- 통계청 (2005). *인구 주택 총 조사*. 서울: 통계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정책 조명*.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샘, 남석인, 김윤경(201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가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5(1), pp.189-218.
- 한인영, 이소래(2002).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0, pp.121-142.
- UN 홈페이지 (2014).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Demographic and social statics.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concerns/fam/fammeth.htm>.
- Elliot, R. (1989). Comprehensive process analysis: Understanding the change process in significant therapy events. M. J. Packer & R. B. Addison (eds). *Entering the circle: Hermeneutic Investigations in Psychology*. Albany, New York: SUNY Press.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pp.517-572.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2, pp.196-205.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pp.3-13.
- RCOA (2013). *Housing Issues for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Australia: A Literature Review*. Refugee Council of Australia.
- Stern, P.(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2, pp.20-23.
- Strauss, A., & Corbin, J. (1994).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overview.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273-285). Thousand Oaks, CA: Sage.
- Williams, T. (198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A handbook for clinicians*. Chincinnati, Ohio: Disabled American Veterans.

김현아는 경북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
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탈북자 및 다문화, 소외계층 고등교육이며, 현재
탈북자 PTSD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haha6082@hanmail.net)

조영아는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탈북자 및 다문화, 여성이며 현재 탈북자 편견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life7777@hanmail.net)

김요완은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상담학
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 및 이혼상담, 가정폭력 등이며, 현재 한국적
상담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ywan@hanmail.net)

The Experience of the One-Person Household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Kim, Hyun-Ah
(Seoul Cyber University)

Cho, Younga
(Sangji University)

Kim, Yowan
(Seoul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o better understand a background of occurrence, their difficulties in adaptation and coping in South Kore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main method of research is the in-depth interview. The subject of the interview are 9 one-person househol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For data analysi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was used. There were 62 concepts, 14 sub-categories and 5 categories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ose 5 categories were 'Change in the family relationship as one-person household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difficulty in independency as one-person household in South Korea',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 a strategic coping for survival', 'psychological resources', 'effort to adapt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North Korean one-person household.

Keywords: One-person Household, North Korean Refugee, CQR